

쑥, 서양민들레 토끼풀



■ 농업과학기술원 식물병리과 집소연구팀

■ **쑥**(*Artemisia princeps*, 영명 : mugwort)
발생·생태적 특성 발, 과수원, 도로변 및 공한지 등 우리 나라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잡초다. 햇빛이 잘 들고 수분이 적당한 비교적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종자와 지하경으로 번식한다. 종자는 광 의존도가 낮으며, 1℃의 저온조건에서 40일 정도를 처리하면 발아가 촉진되지만 발아적정온도는 25℃이다.

형태적 특성 줄기는 높이 50~100cm이고 많은 가지가 갈라지며 전체에 거미줄 같은 털이 있다. 잎은 호생하고 타원형이며 우상(羽狀)으로 깊게 갈라지고 열편(裂片)의 가장자리는 밋밋하여 뒷면에 흰털이 밀생한다. 화경은 거의 없고 원줄기 끝의 원추화서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린다. 대부분의 지하경은 6cm 이내의 얇은 토층에 분포하며 지하경은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옆으로 뻗으면서 싹이 나와 군생한다. 꽃은 8~10월에 연한 홍자색으로 피고 많은 두화가 원추화서로 달린다.

방제법 경운 등에 의해 뿌리가 절단되면 잘린 뿌리가 다시 독립개체가 되어 포장 전역에 퍼진다. 따라서 쑥은 제초제로 방제하여야 하며 처리시기는 5~6월이 좋다. 이 때 사용되는 제초제는 비선택성이며 흡수이행성인 경엽처리형이 좋다. 대표적인 제초제로는 글라신액제(근사미, 라운드오프, 한사리, 근자비), 글라이포세이트의 혼합제(번다운, 랜드마스 타, 일발, 삭술이, 풀매), 글라이포세이트암모늄의 혼합제(베가텍스, 대장군, 허리오프, 스파크), 설폰세이트액제(터치다운) 등이 있다. 이들 약제는 비선택성이므로 살포 시 다른 농작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분과 목초지 등에서 쑥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캄바액제(반벨)를 사용하여도 방제가 가능하다.

■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영명 : dandelion)
발생·생태적 특성 길가, 공한지, 농로, 공원 등 우리나라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민들레는 대개 서양민들레로서 유럽에서 귀

화한 국화과 다년생잡초이다. 서양민들레는 굵은뿌리가 깊이 들어가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며, 잎은 모두 뿌리건에서만 나는데 깃꼴로 길게 갈라진다. 그리고 뿌리나 잎을 자르면 흰색의 쓴 즙이 나온다. 서양민들레와 우리 재래종의 다른 점은 총포(總苞)의 바깥이 뒤로 완전히 제거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양민들레는 봄에 피기 시작해서 겨울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는 점이 다르다.

형태적 특성 잎은 뿌리에서 총생하고 지면에서 4방으로 퍼지며 타원형으로 밑이 좁아지고 우상(羽狀)으로 길게 갈라진다. 측렬편은 밑으로 처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양면에 털이 없다. 꽃은 양성으로 단위생식(單爲生殖)을 하며 3~9월에 황색의 꽃을 피우고 지름 2~5cm의 두화(頭花) 1개가 화경 끝에 달린다. 총포는 녹색 또는 검은빛이 돌고 외편(外片)은 좁은 피침형으로 내편(內片)의 1/2길이이며 꽃피는 시기에 기부가 반곡하고 내편은 곧추 서며 부속체가 없다.

방제법 제초제 살포시기는 생육 최성기인 5~6월이 좋으나 대상 작물이나 잔디의 상육상태를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잔디밭에 발생한 서양민들레는 디카바액제(반벨)로 경엽처리함으로써 방제가 가능하다. 이 때는 인근 수목에 약액이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 등에 따른 약제 이동으로 약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한지 등에 발생한 서양민들레는 흡수이행성 비선택형 제초제를 경엽처리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대상 제초제 및 처리방법은 썩 방제방법과 같다.

■ 토끼풀(*Trifolium repens*, 영명 : white clover)

발생·생태적 특성 모든 경지 및 비농경지에 발생하는 다년생으로 종자와 포복경으로

번식한다. 콩과식물에 공생하는 뿌리혹박테리아가 공중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유기농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소나 양 등의 가축에게는 우수한 목초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잔디밭에 발생하면 토끼풀로 인해 양지식물인 잔디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죽게 하며, 다른 작물에서는 양분경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종자는 18~20℃ 조건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아되나 단명종자이다.

형태적 특성 줄기는 암자색으로 털이 없다. 포복형이고 높이는 15~20cm 정도이며 밑 부분에서 갈라진 가지가 옆으로 기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잎은 호생(互生)하고 3출복엽(出複葉)이며 엽병은 5~15cm이고 소엽은 도란형(倒卵形) 또는 도심장형(倒心臟形)으로 길이 15~25mm, 너비 10~25mm이며 끝은 둥글거나 오목하고 밑은 넓은 췌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탁엽은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6~7월에 백색으로 피고 잎짚에서 10~20cm의 화경이 나와 두상으로 많은 꽃이 달린다.

방제법 잔디밭이나 일부 작물에서는 잡초이지만 목초지에서는 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잔디밭이나 일부 농경지에서 발생할 경우 손으로 제거하여도 되나 제초제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초제 살포시기는 생육 최성기인 5~6월이 좋으나 대상 작물이나 잔디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잔디밭에 발생한 토끼풀은 엠시피피액제나 디카바액제(반벨)를 경엽처리함으로써 방제가 가능하다. 이 때는 인근 수목에 약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한지 등에 발생한 토끼풀은 흡수이행성 비선택형 제초제를 경엽처리하면 가능하다. 대상 제초제 및 처리방법은 썩과 같다. **중요정보**